

목회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신자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문이 목회학이다.

전도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를 제공해주는 학문이다.

기독교 상담학은 문제를 가진 내담자와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상담자간의 대화인데 성경을 기초로 하는 학문이다.

기독교 교육은 구원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조화되어 살도록 교육시키는 학문이다.

그외에도 교회 행정학 교회 정치학 기독교 예배학 기독교 가정학 설교학 교회 성장학 그리고 선교학이다.

본교에서는 상술한 과목들을 거의 가르치고 있다. 이 과목들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은 기독교 교육과 교수들 하도례 선교사 신내리 선교사 몇분의 외부 강사 그리고 필자가 여러과목들을 교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예배학과 목회학을 분리 하였으나 지난 학기부터 합쳐서 3학점이 되었으며 앞으로는 주일학교 행정도 교회 행정학에서 완전히 분리시켰으면 하는것이 필자의 구상이다 그 이유는 주교 행정이 아주 중요하며 또 그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현금에 와서는 신학도들도 실천신학 연구열이 높아가고 있으며 목회자들에는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더 많은 실천신학자들이 배출되어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며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교회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다하도록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교수논단 □

舊約의 本質과 新約과의 관계

교수 박 종 칠

차 례

- I. 舊約의 本質
- II. 舊約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 III. 舊約과 新約과의 관계

머 리 말

오늘날 구약연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가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그중 두드러진 하나는 현대인의 생활 감정에서 구약이 보여주는 것과 일맥상통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는 데 기인하는 것 같다. 기나긴 구약시대를 살아온 조상들의 경험이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더할 수 없는 해결의 원천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구약의 선지자들은 얼마나 외쳤던가. 이사야는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의 구세주로 나타나실 여호와를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하고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의 피난처이시며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현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심같이 포학자의 노래를 낮추시는” 분으로 나타냈다.

또한 시편의 내용은 천대받고 구박받으며 사회적 공의에서 제외된 무리들의 호소에 공감하는 노래라고 이해될 수도 있다. 그리고 전도서는 오늘날도 역시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들에게 생의 풍부한 경험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현대인들의 저항사상에 구약은 호뭇하게 보조를 같이하고 있는 셈이다. 보다 나은 사회, 한 새로운 질서를 갈구하는 투쟁이며 행동으로 봐지는 것이다.

구약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이해가, 그 정당성 여부는 제쳐 놓고라도 역사적으로 구약이 더러 경시되어왔던 (예컨대 신약을 존중하고 구약을 무시한 말시오학파) 배경에 비추어 볼 때 의의가 있다 하겠다. 오늘날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약보다 구약에 더 호감을 갖는 이유로서 신약은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 현세와 내세의 균열을 도입한 반면 구약은 현세와 내세의 균열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구약은 내세사상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고 현실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인이 구약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질 때 우리 개혁주의 후에

들은 어떤 바른 응답을 해야하며 또한 구약을 어떻게 연구하며 전파하도록 도와야 할까? 이것은 중대한 우리의 관심사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구약연구 자체가 너무 방대하므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될런지 누구도 선뜻 말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이란 본질적으로 무엇이며 그리고 그 본질에 근거하여 어떻게 연구되고 전파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더듬어 보는 것이 좋을 줄 안다.

I. 舊約의 本質問題

그러면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구약이 무엇이나?는 질문부터 시작하자. 구약은 성경의 첫 부분으로 천지창조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役事가 歷史 속에 진행해 감을 말하는 중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시기 “앞서 있는” 더 정확한 말로는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성경부분으로서, 오실 것으로 선포된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성문화한 것인데, 말씀과 기록으로 구약이 생긴 것은 오로지 오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 자신 이기 때문이다.

여기 “앞서 있는” 부분 이라함은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책이 제 1권, 제 2권이 있다고 하면 제일권을 의미하는 형식을 뜻한다. 앞선 부분은 어디까지나 그 부분일 따름이지 결말이 아닌 것이다. 결말없는 앞선 부분만으로도 되지 않거니와 앞선 부분없는 결말만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두권이 있어야 완전한 책으로서 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 더 구체적으로 구약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을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책이라고 한 것은 구약이 사실 여러 책들로 되어 있어서, 그 각이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독특성이 있다는 말인데, 그 독특성이 성경의 각 책 마다의 지향점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구약이 오실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처럼 생각한 이단자 말시오의 견해나 아니면

구약없이 신약만을 존중히 여기는 경건주의자들의 견해나, 구약이 보다 더 현대 우리의 생활 감정과 보조를 같이 한다고 해서 신약보다 더 실재적이고, 온정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급진주의자들의 관점을 배격해야만 한다.

구약이 구약 나름대로의 독특한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오늘날 유행하는 잘못된 오류들을 감안해서 하는 말이다. 그 오류중 하나는 지향점 곧 여행으로 말하면 목적지가 도달되었다고 해서 지금껏 방향을 가르쳐 왔던 꺾대들을 다 걷어 치워야만 한다는 것이다. 흔히 듣는대로는 예수의 복음 시대가 도래한 이상 율법의 구약 종교로서 그 율법은 필요없다고 말하는 그런 오류이다. 또 하나는 구약을 하나의 역사적 기념물로 존경하고 보존하는 태도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종족의 특별한 과거 종교사적 기념물이니 크게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구약을 일개 장난감 비슷하게 생각하고 목표지를 잃고 헤매는 태도이다. (종교사학과 견해) 또 다른 오류는 구약의 사건이나 계기들을 다소 독자적인 방향 제시나 감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들이 우리 신자에게 모범적 요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향하는 지향점이나 가치와의 연결이나 궁극성을 등한시 하는 태도이나, 이것을 소위 “모범주의”(exemplism)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오류는 극단주의적인 “유형론”(類型論)인데 그리스도 유형(모형)을 찾는다고 하여 (구약)성경 외에 교회에서나 교회사에서 마저 그 유형적 요소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 유형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구약이 형성되는 데는 한 옛 전통에 그리스도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 있었으면, 그것이 후 시대에 다시 새로이 받아지고 새로운 상황에서 신학적으로 재 해석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에 와서도 오늘의 형편 상황가운데서 그리스도와 닮은 유형(그리스도를 과녁하는 것이 아닌)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 생각의 밑바닥에는 구약은 구약 역사이고 그들에 사는 나와, 심지어 신약과 무슨 상관에 있느냐? 단지 있다면 유형론적 가치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학적 접근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하려 할 때 사회의 구조와 발전과정이라는 구조속에서의 정치, 경제, 기타 여러 요건들

로 인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계층들간의 투쟁과 알력을 찾아 보려고는 했지만 전혀 그리스도를 문제 삼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오류들과는 달리 구약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구약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란 말은 오실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오실 그리스도를 알려 주셨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약계시의 예비적 한계성이 그 계시 자체의 사실성이나 가치를 결단코 감소시키는 뜻은 아니다. 구약이 “아직 남았다”(not yet)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안에서 그의 구원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성을 결단코 희생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구약은 기독교론적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고전 15:28)

이런 구약성경과 성경에 대한 이런 성질을 개혁주의 교회들이 그들 신조에서 한결같이 고백하는 바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특별히 관심하여 성문화 시켰으며 그런중에 구약책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정경화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충족하며 명백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는 구약연구 주제에서 보다는 교의학 주제로 많이 다루어 지는 것이지만 어쨌던 구약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성문화 된 것이라고 믿어지고 그 본질을 받게 되는 것은 성경밖의 어떤 경우에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자체의 권위에서 오는 확신인 것이다. 이것을 성경의 自證(Autopistos)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성경에 대한 확신은 어떤 특수한 본문들에서 본다고 보다는 차라리 성경전체에서 보는 것이며 또한 어떠한 학문적 논리를 여과해서 오는 것이 아닌 학문이전의 성경을 띄고 있다. 이러한 성경관이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성경관과는 구별되는(isolement) 독특한 개혁주의 성경관인 것이다.

구약은 전체성경의 삼분의 이를 차지한다. 그렇다고 구약이 그 부피 때문에 부피가 적은 신약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 내용면에서 볼때는 오실 그리스도를 취급하는 신약에 비하면 덜 분명하다고 하겠다. 구태여 구약의 비중을 알아본다면 그 책 부피나 그리스도를 말하는 질적내용에 있다가 보다는 구약은 구약으로서 갖는 구약 날권들의

성격이며 구약이 기록된 시기가 길다는데서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봐서 그 자체의 심연한 중요성과 측량할 수 없는 신비를 갖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구분대로는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히브리 유대인이 순서를 지어둔 것을 다음세대의 교회가 인정한 것인데 이것이 교회자체의 결정에서 온 것이 아니고 성경자체가 자증해 주는 권위를 성령의 감화로 교회가 인정하고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구약의 본질문제는 바로 신구약 관계를 이해하는 데로 이끄는 것이다.

II. 구약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이 신구약관계 문제는 구약의 핵심을 묻는 문제인 동시에 신약의 본질을 묻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니 성경의 전체사상에 관계되는 것이다. 사실 구약주석사를 살펴볼 때 이 신·구약의 관계문제에 “어떤 신학적 개념의 관점에서 명백한 해명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한 폰라드의 말도 일리는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사로 비쳐지고 있다. 유대종교도 모든 이방종교의 극치쯤으로 보고서 타종교와의 양적(quantitative) 차이 외에 달리는 보지 않으려고 한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사상이 언급된들 정경론적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들에게 구약을 기독교론적으로 해설하다는 것은(그것은 신약과 관련된다는 말인데) 구약에 없는 사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1936년에 발표된 (E·Hirsch)의 「구약과 복음전파 Das A·T und die Predigt des Evangeliums」란 내용도 바로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구약은 어디까지나 율법종교로서 자유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반된다는 것이었다. 구약선지자들이며 족장들이 본질적으로 기독교론적 신앙을 가졌다고 주장함은 하나의 전설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면 구약의 가치와 효용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Hirsch는 “예비명상 V·ormeditation”이라고 함으로서 신·구약과는 대비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

즉 구약본문 자체로서가 아니라 신약의 복음의 종교와 대비해보는 우리 신앙성찰의 결과는, 율법상이 더 드러나는데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구약은 여전히 대조의미로서의 가치가 큰 것이다.

1. 볼트만의 입장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대조적인 면을 부각시킨 것은 멀리서 이단 말 시온신학에서 연유하거나와 여기(볼트만)도 전철을 밟고 있다. 그는 1948년에 「예언과 성취 Weissagung und Erfüllung」라는 논문에서 그가 구약을 보는 관점을 밝히고 있다. 볼트만은 성경을 실존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이니 그가 그에게 역사가 중요할 리는 없다. 그러니 그에게 구약역사는 어떤 의미를 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는 아예 구약역사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모순덩어리」라고 한다. (in ihrem Widsrpsmch, in ihrem Scheitern) 왜 그런고 하니 구약역사에는 일개 한 나라일 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나 그의 하시는 일들을 전적 초월적 종말론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경험적 국가적 차원에서 이해하게 하는 이 구약역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니 볼트만에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연속성이 있게 보일 리 만무하다. 만약 그에게 비쳐지는 어떤 관련성이 있다면, 이 잘못된 역사로 인해 빚어지는 언약개념의 실패, 하나님의 통치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약속의 희망을 줌으로서 이것을 전제한 신약에 또 하나의 “새로운 그리스도신화”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그러니 그의 변증법적이고도 실존적인 개념(Kerugma)이론은 구약의 창조며 역사, 자연이며 역사같은 것이 하등의 의미를 주지 않는다. 따라서 볼트만에게 구약이 크게 등장되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구약과 신약에 하등의 연속성은 없는 것이다.

2. 폰 룰러의 입장

이러한 견해와 달리 전혀 다른 각도에서 구약을 보는 자는(A·A 폰 룰러)다. 그의 저서 「교회와 구약(Die christliche Kirche und das Alten Testament, 1955, 1955, 이 책은 1971년 Eerdman 출판사에 의해 G·W·Bromilsky에 의해 영역되었다)」에서는 구약을 “범죄-사죄”의 테마에 묶

어울 수는 없다고 한다. 그리고는 부단히 구약의 왕국에 대해서 말한다. 즉 창조와 왕국, 시작일과 마치는 일, 형상과 율법, 성화와 인간성, 에로스와 문화, 사회와 결혼, 역사와 국가 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한다. 그리고 구약은 세상의 선에 대하여나 인간의 봉사가능성, 땅을 기록케하는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으니 신정적 차원에서 봐져야 한다고 한다. (p. 52, 89) 그러니 구약은 구원론보다 영화론이 강조되어 땅의 것들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구약에 관한 설교는 단지 기독교적 설교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왕국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폰 룰러의 유명한 전제가 나온다. 구약은 신정국에 대한 일정한 실현에 대해 말하는 것만큼 본질적인 성경이다. 신약은 뒤에 붙어서 해석해주고 보증해주는 설명어휘조(in explanatory glossary)라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그의 이론에는 일면도 없지 않다. 구약설교가 단지 “내가 어떻게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한 수 있을까?” 하는 구원론에만 국한될 수 없으며 구약이 땅의 것들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그의 강조점은 틀리는 것은 아니다. 하나 그가 구원론과 영화론, 기독교적 설교와 왕국설교간에 어떤 모순점이 있다는 잘못된 달력을 만드는 것은 반대할 일이다.

3. 바르트와 그의 학파들

구약에 대한 상당한 가치를 부여하는 이는 또한(바르트)와 그의 학파이다. 1935년에 Vische는 「구약의 그리스도 증거」를 Hellbardt는 「구약과 복음」을 출판했으며 Miskette는 「신들이 침묵할 때 구약의 의미에 대해서」를 출판했다. 이들의 사상 몇 가지를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들은 주장하기를, 구약이 폐기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고백도 무너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 언제나 구약의(그 메시아)를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들을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강조한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모든 역사의 중심을 이루면서 계시의 핵심을 이룬다. 성경은 이 계시에 대해 증거를 한다. 비록 인간의 오류성이 있어도 이것을 통해-계시자체는 아니지만-계시에 대한 증거를 해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셋째로, 구약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그리스도가 무엇(What)이라는 것을, 신약은 누구(Who)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구약은 그리스도의 직임 곧 메시아되심을 말해주고 신약은 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말해주는 차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원의 본질과 과업에 대해서는 신구약은 하등의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단지 그 분배와 소개에 있어서만 그렇다. 그러나 신약이(성취)되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약속된 바가 다 이루어졌다는 뜻에서는 아니다. 더 풍성해졌다든가 더 힘있게 되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신약의 사도들 역시 앞으로를 대망하고 있던 중 왕국이 가깝다고 했지 도래했다고는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넷째로, 올바른 성경해석 방법은 성경의 깊은 뜻인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므로 언어학적 주석은 바람직하나 기독교적 주석을 외면하는 현대학문을 배격한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증거들인 만큼 증거 이면에 있는 숨은 뜻을 찾아내야 한다고 한다. 이 증거의 의미는 과학적 주석을 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만이 그 숨은 뜻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성경저자 자신이 그 작품에 숨어있는 이상 그 어떤 주석은 그를 꺼집어 낼 수 없고 오직 그분 자신이 자기를 나타내는데 이 증거를 함에 아래서 옆에서 비록 그것이 오류있는 인간의 말을 통해서나마 육신이 된 아들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러한 바르트신학에 대해 평가한다고 하면 요 5:39에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에 대한 <사실>을 말하고 있으니 확실한 제자의 의식 가운데 그 사실을 재생하는 의미에서의 증거다. 그러나 이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때는 말씀 그 자체로 믿어야 하는데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일 뿐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는 달라서 사람의 말로나 문자로 기록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때는 그것이 오류있고 모순덩어리로 된 인간형체를 입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증거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다. <말씀 그 자체>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표적 또는 겨냥되어지는 <증거>의 개념이고 보면 이들에게 성경에 대한

역사적 비평을 용납하는 것은 이상스럽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역사계에 사람의 생활권에 들어오는 <종의 모습>을 취했는데 여기 수반되는 모든 인간오류를 감수함으로 부족하고 죄있는 언어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을 그들은 “성경의 육성 Fleischlichkeit” “시간적 제한성 Zeitliche Bedingtheit” “역사적 우연성 Geschichtliche Zsfalligkeit”이라고 부른다.

이 <증거> 개념은 계시 자체가 아니고 표적이므로 이 표적이 가르치는 참 계시인 <육신이 된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것이 성경해석 방법이라고 한다. 이것이 구원사적 방법이라 한다. 예컨대 아브라함이 318 명으로 롯을 구원하러 갔다고 할때 이 수가 문제가 아니라 사천명도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의 깊은 뜻은 엘리에셀의 갓난아이 이름이 히브리 숫자로 말해 318이니 아브라함이 갓난아이 믿음의 반력과 함께 싸웠다는 뜻이며, 단까지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지리적 한계보다도 한계의 표적 곧 믿음이 갈 수 있을 만큼 싸웠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실보다는 표적으로 보니 마음대로의 은유, 내지 상징적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저서에서는 여자적, 역사적 해석이 많이 보이지 않고 은유며 예표로의 자유스런 방법이 성행하며 어떤 역사적 순간의 특수한 사실을 동일한 진리에 대한 증거로 보니, 했던 말을 또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는 (tautology) 일이 허다했다. 특히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서 보면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다른 두 원이기는 하나 다같이 같은 중심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니 아무런 역사발전이나 계시발전이 없는 것이다. 무엇을 말하든지 시대적 특성이 없는 그리스도 유일론 (Christomonism)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여 판 롤러는 이렇게 말한다. ‘의심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돈다. 왜냐하면 죄의 수수께끼가 그의 희생에 의해 해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위로 이뤄진다는 추론으로 이끌 수는 없다’ 이렇게 볼때 바르트 신학의 구약이해와 판 롤러의 그것과는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바르트 신학자들 역시 구약에서 에토스, 에로스 정치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또한 Vischer가 구약은 그리스

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이라 할때 이는 판 롤러가 구약을 본질적인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과 통하는 점이 있다. 다같이 구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겠다.

4. 바움 페르텔의 입장

Claus Westermann이 편집한 「Probleme alttestamentlicher Hermeneutik (1960)」이 「Essays on O. T Hermeneutics (1963)」이란 타이틀로 영역되었는데 이것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이로써 여기 기고한 열 다섯 명의 사상이 우리 한국 신학계에 소개된 것이다. 폰 라드, 노트 짐멜리, 아히로트 판네펠그 등 우리 보수주의 신학계서 볼 때는 자유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에 대해선 차후 생각할 기회가 있을줄 생각하며 이번에는 이중 두 그룹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곧 Baumgärtel과 그 제자 Hesse의 사상과 폰 라드의 입장이다.

전자 두 사람의 견해는 앞에 말한 볼트만과 바르트의 신학양자의 빛에서 볼 때 볼트만에 가까우며 후자의 폰 라드는 바르트에 가깝다고 하겠다. 프리드리히 바움페르텔은 구약 주제에 대해서 많이 썼다. 특히 「약속 구약의 복음적 이해를 위해서」라는 본문은 중요한데 헤르만 같은 이는 이책이 바움페르텔의 많은 책중 가장 가치있는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1952년 이후 구약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논문들을 발표했는데 베스트르만이 편집한 책에서는 구약 예언같은 것으로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의식에 용납할 수 없는 사실로 보나 볼트만과는 달리 이스라엘 역사가 전적 실패며 잘못된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래도 구약과 신약 양자간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라는 기본약속의 맥은 동일하게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구약의 좌절된 구원-심판의 주제가 신약의 율법하에 있는 인간을 포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구약에 대한 복음적 이해가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 ① 구약증거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 ② 구약말씀은 그 시대에 의미를 가졌던 옛날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복음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유형론적 또는 기독교론적 해석은 용납될 수 없다.
- ③ 구약을 해석하는 방법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는 근본적 약

속으로 구·신약 전체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의식 (Historicity) 은 구약에 근거된 것이 아니라 성육신에 기초된다고 한다. 이렇게 될 때 그의 〈근본 약속〉 개념은 비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역사적으로 어떤 실현된 약속들과 예언들은 이 기본약속과 아무런 관련없는 것으로 보는 것은 〈방자한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사상이 그의 제자였던 Hesse의 논문 「교회책으로서의 구약」 (Das Alte Testament als Buch der Kirche, 1966)에서 더욱 진전되었다. Hesse가 1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대의 신자에게서와 마찬가지로 20세기의 우리에게도 역시 말씀하고 계시다(P19)’는 것이다. 책 후면에 가서는 ‘구약전체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로서 가치가 있다(P.108)’고 하여 이것을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는 문제는 단순한 이해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라고 한다. 구약은 규범적인 의미를 가지기는 하나 그 장에서는 ‘규정된 규범’ 곧 ‘권위와 한계가 또 다른 규범 곧 신약에 의해 유지되는 그 자체 규정되어진 규범’이라고 한다. 근본적으로 신약만이 그 자체 규정된 규범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협소한 의미의 절대규범 곧 본질적이고 최후적 규범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자유롭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다. 3장에서는 신약자들이 구약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다루면서 결론짓기를 ‘이와 같은 구약과의 인용(교섭)은 우리에게 이상 더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 4장에서는 ‘해석학의 열쇠로서의 약속개념’을 다루고 있다. 본장이 온점적인 장이지만 신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받았던 약속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런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 아니고 확인된 것이며 인용된 것이며 지금 이것들이 참되고 그리고 효과 있게 작용하고 있다. 즉 그것들의 가치는 모든 신자 외에도 이스라엘에게 열려있다’ (P119)고 한다. 그런데 이 약속이란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관련되는가?의 문제에 대해 구약의 기본약속-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인 될 것이라-은 옛날 그 당시에 구상화되었고 오늘의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준다고 한다. 가령 예후가 에글론을

살해한 용감한 사건은 (삿31:25) 그때 이스라엘인에게는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 거룩한 뜻에 거역하는 나의 의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의 위로를 준다고 한다.

5. 폰라드의 유형론적 입장

이제 폰 라드에 대해 살펴보자. 1957년과 1960년에 걸쳐 「구약 신약 Theologie des Alten Testaments」을 출판하고 그의 구약과 신약에 관한 견해는 「구약의 유형론적 해석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s」에서 잘 나타난다. 그에게는 구약이 우선은 이스라엘의 종교책도 아니며 이스라엘 신앙역사책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유일성이 그들의 고상한 신관을 가졌다는데도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에서 성취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계속된 역사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 구약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려고 한다.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의도하는 것은 역사 안에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폰 라드가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이다. 이와 같이 구약에 대해 오늘의 신자와 교회는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나는 이스라엘인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폰 라드 자신이 대답하기를 ‘어디서나 하나님에 의해 존재양식으로 부름받은 역사 속에서 우리는 신약적 그리스도 사건의 예표를 보게 되는데 관련이 있다’고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구약의 유형론적(Typological) 관찰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이 그의 「구약신약」 제 2권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전통이 세대에서 세대로 계승됨으로 인해 그 내용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언제나 새로이 재해석되어 온 것이다. 새로운 형편에 맞춰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소위 〈현실적 재해석 aktualisieren enclé Neu-interpretation〉이다. 예컨대 가나안 땅의 약속 이야기를 들 어보면 문화권에서 소외된 체 변두리 장막에 거하였던 족장들에게 그 땅(가나안)을 차지하여 살게된다는 약속들이 주어졌다. 이 약속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하며 소유하고 나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신명기에

서-폰 라드는 ±600 요시아왕 시대 연유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미래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도록 처음으로 해놓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화적 새해석〉은 선지자들이 특히 시도했는데 이들은 새출애굽, 새 언약, 새 땅 정복, 새 다윗, 새 시온등을 말함으로서 고대 여호와께서 하신 구원능력을 전수함과 동시에 이러한 새것에 대한 기대들이 이미 구약에 예표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했다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구약전통이 오히려 정경화되어 현실화적 새해석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간섭 즉 그리스도의 재림에 근거하여 위대한 〈현실화적 새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구약신학 II P.328) 이와 같은 유형론적 고찰은 예표들이며 유추들을 전제하고 있다. 이같이 말한 후에 폰 라드는 신구약의 연결을 '종교적 개념에서가 아니라 구원사의 영역에 있다'고 한다 (P.382) 그러나 이 점에서 구원사라는 일방적 문맥에서 다루지 않고 폭 넓은 개념적 의미에서 다루고 있다. 구약이 신약의 모든 것에 꼬나풀을 주는 정당한 개념의 예비가 된다는 것이다. 신약 메시지의 특징인 〈인간〉이며 〈인간의 가능성〉이며 〈육체〉며 〈세상〉이며 〈세속역사〉를 하나님의 자아계시 영역으로 보는 것은 이 구약에 있는 사상들과 원리적으로 하등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P. 330) 그리고 '구약이 세상이며 인간에 대해서 철학적 종교적 관점 이라는 별개의 중립적 현상으로서 비신화적으로 이해하는데 하등의 문제된 것이 없다'고 한다. 구약의 한 관점은 특수한 구원사건의 그늘에서만 나타내는 세계관이라고 한다.

폰 라드에 대해 몇 가지 비평을 한다면 구약과 신약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문제에 대해 볼트만이나 바움케르텔, 헤세보다도 연속성을 인정한다고 보지만 올바른 입장에서는 아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왕국 오심에 대한 역사를 증거하고 있지만 그것이 구약인데 나와 교회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문제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모든것을 예표론적 모형이나 유추로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

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의 예표나 모형이 아니라 바로 구약시대의 교회인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약교회는 이스라엘의 원형(antitype)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이스라엘인 것이다. 또한 폰 라드에게는 일맥상통한 구원사가 아니라 별개 것이 한테 얽혀 있는 것으로 구약은 많은 부분이 지상적인 것이고 신약의 많은 부분이 영적으로 보아진다는 것이다. 그가 '신약의 구원축복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힘을 주려고 했던 것과는 아주 다르다 (P.384)'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문맥에서 봐야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그가 '구약은 신약에 대응하는 정당한 개념의 예비'라 한 말과는 어딘가 자가당착적인 면이 없지 않다. 폰 라드는 〈유형 Type〉이라는 막연하고 폭 넓은 의미를 사용하여 구약의 인물, 기구, 사건들에서 신약에 상응하는 형태를 찾아 억지비유(forcing porabls)를 시킴으로서 구원사에 완전한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는 것 같다. 유형론이라는 관점 때문에 구원사의 특정한 인물, 특정한 장소, 특정한 형편등의 특수한 구원사적 의미를 회생시킨다. 환언하면 구원사의 점진적 발전을 회생시킴으로 역사의 맥락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의 〈현실적 새 해석〉을 통해 과거와 오늘이 동일화되며 심리화되는 위험이 온다. 이러한 구원사적 맥락이 없는 기독교론적 비유는 오히려 하나의 우상을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폰 라드가 의미하는 유형론적 해석의 예로 요셉의 역사를 든다. 창50:20에 "당신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는 이 옷점적인 귀절에서 요셉 사건 자체를 넘는 어떤 것을 해석해 주고 있다고 한다. 그 원래 의미하는 바는 요셉이야기이긴하나 그 완전한 의미의 귀절은 그 귀절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 완전하고 정당한 응용이 되는 것은 신약의 구원사건에서 만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P.369) 이러한 그의 해석 곧 요셉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역사의 모형이라하는 내용이 요셉 이야기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반대할 것은 못되나 창 50:26에서 핵심을 찾기도 고난받는 의인의 상에서 찾아질 줄 안다. 그리고 그는 사8:16~18과 히2:13에 대하여 이 유형론적 해석을 내리는데

그의 유형론적 해석은 개체본문에 이론적 규범을 적용할 것은 못되고 오로지 성령의 자유에서 나와야 한다고 한다. 유형론에 집착하되 결국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것이다.

Ⅲ. 舊約과 新約의 관계

마지막으로 개혁주의자들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근본적 단일성을 주장하며 이 단일성은 그리스도를 쫓접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이러한 단일성이 양 언약간에 있는 차이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의 그의 기독교 강요 제 2권 10장과 11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모든 족장과 맺은 언약은 그 본질에서나 과업에 있어서 우리들과 맺은 언약과 전적으로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이다. 오로지 그 시행에 있어서 다를 뿐이다”고 한다. 그 본질에 있어서 단일성을 주장할 때 세 가지 점을 들고 있다. 첫째, 유대인들 역시 물질적 부와 번영을 그 생의 목적을 삼은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죽을 때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 그러니 구약은 지상의 축복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둘째로, 언약은 인간의 언뜻 공덕사상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로, 구약과 신약이 다같이 오로지 중보자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의 약속에 동참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위의 세 가지 요의를 칼빈은 언약의 본질이라고 한다. 구약이나 신약이 한결같이 그 근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비, 그 약속과 그 위협에서나 영생과 영원한 죽음) 중매가 그리스도이나 영생을 인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 두 가지 언약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같은 은혜계약에 대한 두 가지 분배상의 차이라고 함이 옳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분배라고 할 때 여기 언약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로지 행정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 칼빈은 그 차이점을 다섯 가지로 들고 있지만 사실 “하나된다”는 설명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약속의 근본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핵심이 되고 있다. 첫째, 여호와께서는 지상의 축복들을 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보며 맛보도록 했는데 이는 전반적인 훈련의 의미로서 복음이 분명히 더 밝게 계시된 지금에 와서는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지상의 소유 가운데 거울에서 보듯 미래의 유산을 보게되며 거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눈에 보이며 나타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구약은 오로지 형상이며 그림자인 반면 신약은 사실이며 실체라는 것이다. 여기에 율법의 그림자적 역할, 곧 몽학선생의 역할을 강조한다(갈 3:24) 셋째로, 율법과 복음은 차이가 있는데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고 신약에만 큰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점진적 차이일 뿐이라고 한다. 넷째로, 율법과 복음에는 종노릇과 자유의 차이가 있다. 구약 족장들 없시 우리들과 같이 자유와 기쁨의 동참자였기는 하나 오늘의 우리들 같이 완전한 계시 속에서 무제한적으로 누린것은 아니었다.

다섯째로, 언약은 결단코 한 민족에서만 제한된 것은 아니었다. 즉 칼빈은 양 언약간의 점진적 차이는 인정하나 본질에 관한 한 하나됨을 강하게 주장한다. 처음에는 어둠던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밝아졌다는 것이다. 동일한 계시의 일이지만 한편에서는 힘있게 다른 한편에서는 번두리에 왔다고 한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 원리적으로 잘 해결하였다고 본다. 구약이니 율법이고 신약이니 복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은 말이다. 그리고 바르트신학에서 자주 엿보이는 약속-성취의 테마, 이것 역시 온전치는 못하다. 구약이라해서 완전히 <약속>의 의미가 아니며 신약이라해서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다. 폰 라드와 같이 구약을 정당한 개념의 <예비>라 하며 신약과 유형론적으로 해석함도 역사적 특수성을 무시한 잘못이다. 또 어떤 이는 구약을 <하나님의 예비적 오심>으로, 신약을 <하나님의 결정적 오심>으로 구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오심>에서 단일성과 하나님의 계시에 판가름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비적”이라고 하는데 구약에도 하나님이 오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것은 오히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 예비적 오심으로 말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이들이 말하듯이 양 언약 간의 차이에 대해 “덜-더

less-more”의 관계 곧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덜 나타났던 때 이고 신약은 계시가 더 나타났다는 이 견해가 칼빈의 입장이었고 우리의 입장인 것이다.

그러므로 신구약의 관계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해되지 않는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우리는 이 관계가 그리스도적으로 되어있음을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이다.

□ 교수논단 □

The Background and Terminology of Jesus' Self-Designation "the 'Son of Man'"

김 세 윤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부교수·신약신학〉

As it is well known, a figure described as being כְּבֶן אָדָם (or its equivalents) appears in three Jewish apocalyptic books: Dan 7; 1En 37-71; and 4Ezra 13. The latter two clearly show the influence of Dan 7. In Dan 7.13 Daniel sees in a vision the figure coming with (or upon—LXX) the clouds of heaven to the Ancient of Days. This figure, having been presented to the Ancient of Days, receives dominion, glory and kingdom. The phrase “son of man” is clearly no title here: Daniel does not see “the Son of Man” but one “like a son of man”. It is rather a descriptive, pictorial phrase which expresses that the figure Daniel sees is like a man, has a human form or likeness. The accompaniment of the clouds in his appearance, however, indicates that he is a divine figure. For in the Old Testament clouds regularly accompany theophany¹⁾ So, the figure Daniel sees is a deity appearing